



2023. 01  
Vol. 610

# 부산상공회의의

Story for 부산CEO

# Show



# 謹賀新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기업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존경하는 상공인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3년은 부산경제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먼저 부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에 이어 연말에는 개최지가 최종 확정됩니다.

그동안 정부 유치위원회와 부산시 그리고 경제계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초반 격차를 상당 부분 만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남은 시간동안 더 많은 나라들의 눈길과 지지가 부산으로 향할 것입니다.

현재의 긍정적인 기대를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용광로 같은 뜨거운

유치 열기를 뿜어내어야 합니다.

지역의 기업인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유치위원이라는 마음으로

지역의 유치 열기를 모으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금융산업과 제조업을 견인할 산업은행 본점 이전 사업도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부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경제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열심히 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산업은 지역경제의 미래먹거리인 만큼 산업은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출입은행 등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계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산경제의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치솟는 금리와 물가 등으로 인해 올 한해 경기와 지역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기감이 분명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부산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의 족쇄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기업이 투자에 나설 때만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부산상공회의소는 올해 부산시와 함께 온-오프라인 소통플랫폼을 신설하여 기업과 산업에 관련된 규제혁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하고, 규제에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업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이 부산의 비상을 이끈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헌신합시다!

지역경제계도 뜻을 세워 반드시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 넉자를 가슴에 품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장인화

# 有志竟成



# Contents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AGAZINE 2023 vol. 610**

발행일 2023년 1월 9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활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디자인·제작 (주)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부산상공회의소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 02 신년사

## 06 BCCI Special

부산상공회의소 2023년 신년인사회

## CEO 취향저격

### 10 부산의 대전환을 찾아

울릉도와 독도의 주권을 지켜낸 부산의 인물 '안용복'

### 14 해외 여행 추천지

여행자들의 로망 '일본 홋카이도'

### 18 CEO 단골 맛집

일식 전문점 '월강(月江)'

### 20 메시지 인 시네마

<컨택트> 우리는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는가

### 22 가객의 인문학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

## ZOOM in BCCI

### 24 2023년 부산상공회의소 시무식

### 26 STORY OF 캡틴장

### 28 Together with 2030

- BIE 총회 참석 & 유럽 3개국 유치 교섭단 파견

-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편지를 타고

### 32 기업포커스

르노코리아자동차

### 36 Look at Me

스타트업 '쥬서르'

## 트렌드 TALK

### 40 부산 청년이 새해 지역기업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 경제 트렌드

### 42 경제키워드

- 2023년 10대 소비트렌드 전망

- 2023년 새해 부산경제 주요 현안 사업

### 46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 48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 52 멤버스 라운지

2023년도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 부산상공회의소 2023년 신년인사회



3 4 5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



1 2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장인화 회장, 박형준 시장, 안성민 시의회의장, 하윤수 교육감

### 3년 만에 지역 주요인사 600여명 모여 부산 발전과 지역경제 새로운 도약 다짐!

부산상공회의소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오후 5시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부산지역 주요 인사들이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부산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는 '2023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된 2023년 신년인사회에는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대표들과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여·야 국회의원, 언론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주요 인사 600여명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현안 해결을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을 다짐하였다.



신년사를 하는 장인화 회장

“2023년은 부산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장인화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이 나서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극복의 선두에 서겠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 경제계는 적극적인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부산시와 공동으로 소통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 현안의 정점에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부산이 금융특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올해 연말 2030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 될 것

박형준 부산시장도 “되는 집안에 손님이 모이는데 3년 만에 열리는 신년회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걸 보니 새해에는 부산이 되는 집이 될 것 같다”며, “글로벌 허브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야 하는 만큼 올해 전방위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친다면 연말에는 세계박람회를 부산이 주최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1 새해 맞이 떡케익 커팅식  
2 신년사를 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건배제의를 함께하는 주요 참석자들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하운수 부산시교육감    서병수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강병중 회장

부산 경제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한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과 하운수 부산광역시 교육감,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이 건배제의를 통해 참가자들과 함께 새해 부산경제 발전을 위한 덕담을 나누었다.



보름달에 담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메시지

아울러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특별 퍼포먼스로 토끼해를 맞아 지름 약 2.5m길이의 보름달 형상을 행사장에 띄웠다. 보름달 형상물에는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받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메시지를 담아 특별한 의미를 더했으며, 퍼포먼스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의 열망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다. 🌕

3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보름달 퍼포먼스 버튼을 터치하는 장인화 회장과 박형준 시장  
4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보름달 퍼포먼스



수영사적공원에 있는 안용복 장군 동상

## 역사의 교차점에 서다 울릉도와 독도의 주권을 지켜낸 부산의 인물

# 안용복

글·사진\_ 손민수 부산여행특공대 대표·이바구스트

### 대전환의 시대와 안용복

바야흐로 대전환을 꿈꾸는 시대다. 긴 터널 같았던 코로나가 시작된 순간부터 현재의 순간까지 사회 전반에서 대전환의 봄이 일어났다. 부산이 꼭 유치해야 할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항해'라는 주제를 보더라도 대전환은 시대의 화두로 느껴진다. 사전에서 전환(轉換)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이라 되어있다. 예전과는 다른 방향이나 상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로 '전환'은 일어난다. 또한 전환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나 계기, 전환의 포인트가 존재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연재는 바로 '그' 시대의 전환점,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의 교차점에 서서 부산의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이야기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대전환의 교차점에 섰던 부산의 인물 안용복이다. 안용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조선시대 평민 이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 받아오신 분"이다. 최근 일본이 국가안보 전략을 9년 만에 전격 개정하면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시대의 전환'을 꿈꾸지 못하는 일본에게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좌천동에 있는 안용복 기념 부산포개항문화관

###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 안용복의 1차 도일

안용복은 1693년과 1696년 2차례에 걸쳐 일본에 갔다. 1차 도일은 사실 일본의 어부들에게 납치당해 일본으로 끌려간 것인데, 1693년 3월경 동래와 울산의 어부들과 함께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갔다가 조선의 바다에 함부로 들어와 조업 중이던 일본 어민들을 꾸짖고 내쫓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납치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 일본의 백기주도(伯耆洲島)에 끌려간 안용복은 백기주의 태수에게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 사람들이 간 것이 문제가 되느냐'며 강력히 항의했고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에 일본 어부들의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했다. 왜관을 드나들면서 익혔던 능숙한 일본어와 안용복의 논리적이고 거센 항의에 백기주 태수는 일본 최고의 권력기관인 막부에 안용복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신병 처리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고 5월에 회신이 왔다. 막부는 안용복을 동래부(東來府-도시 부산의 탄생 전인 조선시대 동래부의 관할지역으로 현재 부산지역)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써 주게 하였다. 이는 일본 스스로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공식적' 입장으로 현 상황에서 본다면 실로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동래부로 이송되기 전 안용복은 9월 초 대마도로 이송되어 50일 정도를 다시 억류당했다. '서계'마저도 대마도주(大馬島主)



안용복 기념 부산포개항 문화관에 있는 안용복 장군의 모형과 안용복 장군의 호패

에게 빼앗긴 채 굴진중(橘眞重-타치바나마코토)이라는 사신과 초량왜관(현 용두산 아래)을 통해 귀국했지만, 왜관에서 40일이 넘게 감금당했고 12월야 풀려났다. 안용복은 곧장 동래부사를 찾아갔다. 그때까지의 일들을 소상하게 고했지만 '허가 없이 국경을 넘은 월경죄'를 물었고 곤장 100대와 2년 동안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흐릿했던 국경 의식을 되살린 안용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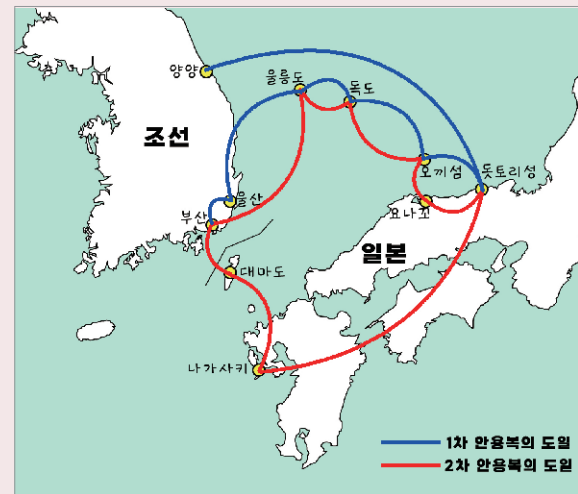
안용복을 데리고 조선에 들어온 굴진중은 대마도주의 계략 대로 '일본의 영토인 죽도(竹島)에서 조선인의 어업을 금지 해달라'고 주장하였고 울릉도를 죽도로 이름을 바꿔 달라며 억지 주장 하였다. 이미 80여 년 전(광해군 6년) 대마도 왜인이 울릉도에서 살고 싶다고 조정에 서신을 보냈지만, 답을 얻지 못했고, 대마도주의 입장에서는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울릉도를 비워둔 채 국경 의식도 흐릿했던 조선의 뒤에서 불법조업과 벌목과 정착까지 몰래 자행해 왔는데, 막부까지 알려진 안용복 사건으로 '울릉도'가 수면으로 부상할까 봐 불안했을 것이다. 결국 수면으로 부상한 울릉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에 대한 논의는 1694년 4월 갑술환국으로 대일강경 노선의 소론이 정권을 잡자 일본인들의 울릉도 어업과 도해를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울릉도의 조선 영유권을 확실하게 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막부에 보냈다. 또한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수토사(搜討使)로 삼아 울릉도로 보냈는데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울릉도의 부속 섬인 독도의 존재를 공식화했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아득한 바다에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며 거리는 300리밖에 되지 않는다" 원래 조선은 공도 정책의 기조 아래 울릉도의 조선인들을 데리고 나오는 쇠퇴 정책을 펼쳤지만, 안용복의 1차 도일 이후에는 수도 정책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① 안용복 장군이 일본에가서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공식화 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  
 ② 수영사적공원에 있는 안용복 장군 사당

**울릉도와 독도를 위한 안용복의 헌신 - 2차 도일**

옥에서 풀러난 안용복은 일본에서 받은 서계가 동래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 사실 1696년 1월에 막부는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어민의 도해와 어업을 금지하기로 한 서계를 작성했지만, 대마도주가 접수를 미루고 있었다. 이에 안용복은 승려와 어민들과 함께 13척의 배를 이끌고 울릉도로 갔고 울릉도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인들을 쫓아내었다. 그리고 그길로 일본 백기주도로 향했고 미리 준비한 관복을 입고 '조울양도감세장(朝鬱兩島監稅將)'이라는 깃발과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으로 기록된 조선팔도 지도를 가지고 백기주의 수석 가로(번의 대신 중 가장 높은 직책) 황미대화(荒尾大和-아라오오카즈)를 만났다.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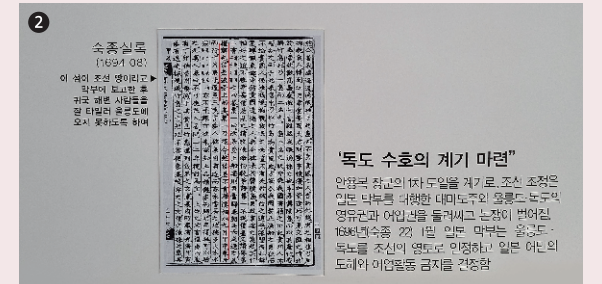


안용복이 일본에 다녀온 경로

당상관(정3품)의 복장으로 1차 도일 때의 서계를 상기시키고는 불법 어업과 도해를 꾸짖고 대마도주의 만행을 고발하는 문서를 막부에 제출했지만, 대마도주의 개입으로 영유권 문제 등을 해결 못 한 채 강원도 양양을 통해 돌아왔다. 하지만 월경 하고 관리를 사칭했다는 중죄가 기다리고 있었다. 봉당의 노론 쪽 인물들은 안용복의 처형을 주장했지만 남구만 등의 소론은 중죄임은 분명하나 조정에서조차 할 수 없었던 공적도 크기에 감형을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안용복은 유배령을 받았다. 그의 나이 40세(기록마다 다름)의 일이며 유배령 이후 안용복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전술한 대로 1696년 1월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지만, 조선은 1697년 역관 귀국 후 사실을 확인했고 1698년 4월 막부에 확인을 회신한다. 1698년 7월 막부는 회신 서계를 인정 하고 1699년 1월 대마도에 알리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해권 논쟁은 종식되었다.

**대전환을 가져다준 역사 속 인물 안용복**

안용복은 조선이 실행했던 오랜 공도정책으로 영토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시기,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내고 조선의 영토 수호 의지를 드높인 결과를 가져왔다. 독도지킴이 안용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의 행적과 결단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1828년 일본 역사가 강도정의(岡島正義-오카지마 마사요시)가 쓴 죽도고(竹島考)에는 안용복의 호패 속 주소가



① 독도박물관에 있는 안용복 장군으로 인해 시작된 조선의 수도정책을 보여주는 문서  
 ② 독도 수호의 계기를 마련한 기록이 담겨있는 속종실록(1694)

나온다. 부산 좌천리 제14호 3호.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앞두고 부산이 나아가야 할 '대전환의 시대' 자랑스러운 부산의 인물 안용복을 기억한다. 🇰🇷



안용복 장군이 우리땅으로 지켜낸 독도의 모습

# 겨울이 되면 늘 생각나는 곳 여행자들의 로망 ‘일본 홋카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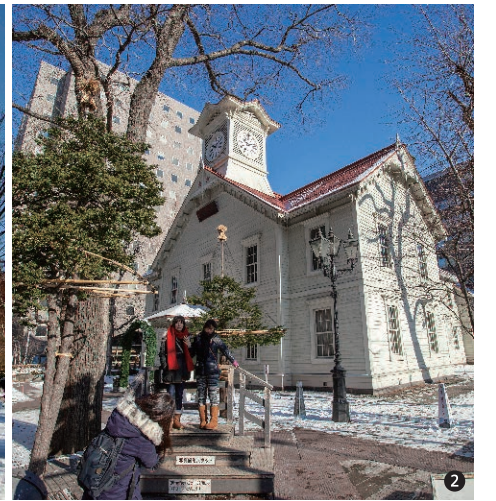
글·사진\_ 문철진 여행작가

# HOKKAIDO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는 새하얀 설국을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겨울 여행지다. 눈이 귀한 부산에서 경험하기 힘든 설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데다 태평양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과 홋카이도에서 직접 생산한 달콤한 유제품들이 미각을 자극한다. 최근 홋카이도행 항공편이 잇따라 재개되면서 망설임 이유는 더욱 없어졌다. 겨울 여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홋카이도에서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네 곳을 엄선했다.



홋카이도청 구 본청사



- ① 삿포로 맥주 박물관
- ② 삿포로 시계탑
- ③ 삿포로 클래식 맥주
- ④ 삿포로 맥주 박물관에서 맥주를 시음중인 사람들

## ❄️ 홋카이도 여행의 중심 ‘삿포로’

부산에서 홋카이도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김해공항에서 삿포로 신치토세공항을 잇는 직항편이 최근 운행을 다시 시작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삿포로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면서 각 지역을 잇는 교통편을 잘 갖춰 대부분 여행자가 삿포로를 중심으로 홋카이도를 여행한다. 신치토세공항에서 JR 기차를 타면 40분 만에 삿포로에 도착한다. 삿포로에서 가장 먼저 가볼 곳은 홋카이도청 구 본청사다. 1988년에 지어진 건물은 미국식 네오 바로크 건축 양식으로 정원에 가득 쌓인 하얀 눈과 붉은 벽돌, 푸른 하늘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탈바꿈해 홋카이도의 다양한 역사를 보여준다. 근처에 있는 삿포로 시계탑도 함께 둘러보자. 1881년에 만들어진 삿포로 시계탑은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별문 프레임 건축양식을 본떠 만들었다. 항구를 통해 서양 문물을 급속히 받아들였던 일본 사람들의 개항 정신을 엿볼 수 있는 홋카이도의 중요 문화재다. 삿포로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 맥주다. 일본 최초의 맥주 공장이 설립된 곳도 삿포로다. 북위 43도 선의 물맛 좋은 고장이니 자연스럽게 맥주 산업이 발전했다. 삿포로 맥주박물관에 가면 삿포로의 맥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실제 맥주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대한 솥도 볼 수 있고 삿포로에서만 판매하는 ‘삿포로 클래식’도 맛볼 수 있다. 삿포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오도리공원에서선 화려한 빙축제와 얼음 축제가 겨울시즌 동안 진행된다. 오도리공원과 가까운 스키노는 해물 요리와 라멘, 초밥 등 홋카이도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들로 가득하다.





① 오타루 거리  
② 오타루 오르골도 본관  
③ 오타루 운하 야경



**❄️ 낭만이 흐르는 운하 도시 '오타루'**

오타루는 삿포로에서 기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다. 영화 '러브레터'의 배경으로 너무나 유명한 이곳은 특히 겨울이 매력적이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오타루 운하의 야경은 겨울 홋카이도 여행의 백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겨울철 홋카이도는 해가 오후 3~4시면 지기 때문에 오전에 출발해서 일몰과 야경까지 보고 오는 하루 코스로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오타루 여행은 보통 메르헨 교차로에서 시작한다. 삿포로역에서 오타루행 JR을 타고 오타루역 한 정거장 앞인 미나미 오타루역에 내리면 근처에 메르헨교차로가 있다. 서양식 건물과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식당과 잡화점들이 줄지어 있는데, 일본 최대 규모의 오르골 전문점인 오타루 오르골도 본관도 이곳에 있다. 일본의 분위기가 느껴지면서도 서양의 분위기가 오묘하게 섞인 골목 풍경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수시로 붙잡는다. 맛있는 오타루의 유제품들도 오타루 여행의 재미다. 오타루 여행의 대미는 오타루 운하다. 늘어나는 화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지금은 관광 명소로 탈바꿈해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눈이 수북하게 쌓인 운하와 주변의 석조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영화의 배경이 될 만큼 아름답다. 어둠이 내리고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로 변신한다.

**❄️ 겨울 홋카이도의 진수 '비에이'**

홋카이도 겨울 여행의 진면목은 비에이에서 펼쳐진다. 눈 덮인 언덕에 앙상한 나무들이 하나둘 서 있는 겨울 홋카이도 특유의 서정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데다 대중교통이 그리 편하지 않아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운전대 방향이 우리와 반대이고 폭설이 내릴 경우 고립될 수도 있으니 1일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언덕의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비에이는 대부분이 산림지역이어서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이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한다. 무릎이 푹 빠질 정도로 많은 적설량 덕분에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들판인지도 구분

비에이설경 마일드세븐언덕



④ 비에이설경\_부자의 나무  
⑤ 비에이\_흰수염폭포

할 수 없다. 거대한 눈발이 끝없이 펼쳐지는 비에이의 황량한 겨울 풍경은 건물로 가득한 도시 풍경에 길들여진 우리들의 눈에 시각적 충격으로 다가온다. 광고에 등장해 유명세를 얻은 켄과 메리의 나무를 비롯해 마일드세븐 언덕, 부자의 나무 등이 몰려 있는 패치워크 로드와 푸른빛이 신비로운 청의 호수,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흰수염 폭포 등이 주요 볼거리다. 곳곳에 온천 호텔도 많으니 저녁엔 뜨끈한 온천탕에서 몸을 녹이는 호사도 누려보자.



⑥ 하코다테 노면전차  
⑦ 하코다테 산 전망대에서 본 야경  
⑧ 하코다테 창고 거리야경



**❄️ 설경과 야경의 기막힌 조화 '하코다테'**  
홋카이도 남단에 위치한 하코다테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항구도시다. 일본의 여느 소도시처럼 작고 아담한 풍경이 오히려 마음을 당기는 여행지다. 삿포로에서 JR 기차를 타면 하코다테까지 3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아침 일찍 출발해 밤늦게 돌아오는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하지만, 하코다테에서 1박을 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하코다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짧지 않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하코다테로 가야 할 이유는 바로 야경이다. 하코다테 야경을 보기 위해선 하코다테산 전망대로 가야 한다. 334m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다. 칼바람이 부는 전망대에서 서면 발아래로 하코다테 도심과 항만이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허리가 잘록한 하코다테의 지형이 마치 한반도처럼 보인다. 어둑어둑해진 하늘 아래로 눈 덮인 도심이 불을 밝히기 시작한다. 눈이 내린 도시의 야경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걸 하코다테에서 처음 알게 된다. 하코다테가 세계 3대 야경 명소로 일컬어지는 이유다. ❄️



월강 입구

## 백년 가게를 향해가는 부산을 대표하는 일식 전문점 ‘월강(月江)’

반세기 가까이 부산의 중심 서면에서 많은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며 사랑받아온 일식 전문점이 있다. 바로 서면 북개도로에 위치한 ‘월강(月江)’이다.



월강 허성우 대표

### 1979년부터 시작된 월강의 역사

올해로 운영한 지 45년째가 된다는 월강은 현재 허성우 대표의 부친께서 제대로 된 일식집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인천에서 당시 일식의 대가로 불리던 스승에게 요리와 가게 경영 노하우를 배워 1979년 서면 시장 쪽에서 6평 남짓 작은 가게로 시작하였다. 그렇게 고객들에게 최고의 일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월강은 반세기 가까운 역사를 가진 부산을 대표하는 일식 전문점으로 성장하였다.

### 호텔리어에서 일식 전문점 대표로

현재 월강을 운영하고 있는 허성우 대표의 원래 꿈은 호텔리어로 부산의 유명 호텔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허 대표는 부친이 오랜 세월 장인 정신으로 일궈온 월강을 계승하여 계속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일식 전문점으로 발전시키려 하고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게 경영을 배웠다고 한다. 그렇게 십여 년간 경영 노하우를 쌓은 후 2018년 직접 대표가 되어 월강을 운영해오고 있다.



- 1 점심특선 회정식 코스
- 2 랍스타 사시미와 석화
- 3 생선복과 석화



최고급 사시미



전복 버터구이



한우 채끝 스테이크

###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코스요리

월강에는 다양한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정통 일식 전문점답게 일식 코스요리가 일품이다. 점심 코스로는 회 정식과 초밥 정식이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메뉴이며, 저녁 코스요리에는 유키 코스, 나츠 코스가 인기 있는 메뉴이다. 저녁 코스에는 최고급 사시미 회와 해산물은 물론이며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랍스타 사시미, 민물 장어구이, 한우 채끝 스테이크, 전복 버터구이를 비롯한 중식과 양식이 가미된 음식들도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일식전문점

맛있는 음식과 함께 월강은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4층 건물의 모든 식사 공간이 룸 형태로 되어있는데, 2인룸 부터 60인까지 수용하여 프레젠테이션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대연회장 시설까지 완비되어있다. 고객의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모임과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몇 년 전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간담회를 월강에서 개최한 적도 있는 만큼 좋은 시설을 자랑한다.

### 고객과 소통하는 대표

허성우 대표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자갈치 시장에서 그날 손님들에게 제공할 활어를 직접 구매하고, 각종 싱싱한 야채도 반여 농산물 시장에서 매일 공급받는다. 허성우 대표는 가게에서 하루 약 16시간 정도를 보낸다고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고객들의 메인 요리는 직접 고객룸에 서빙하며 고객들과 소통하려 노력한다고 한다. 허 대표의 이러한 노력이 힘입어 지역기업인, 국회 의원, 연예인 등이 월강의 오랜 단골로 찾고 있다.

### 백년(百年) 가게를 꿈꾸며

일본에는 100년 가게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허성우 대표는 월강을 100년 역사의 장인 가게로 운영해나가는 게 목표라고 한다. 허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늘 고객들에게 ‘맛있고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도 늘 밝고 활기찬 마음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월강을 부산 최고의 일식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목표를 전했다. 🚀



월강 프라이빗 룸

어느 날 갑자기 지구 곳곳에 12개의 외계 비행체가 나타났다. 그들은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 온 것인가 아니면 인류와 소통하기 위해 온 것인가. 드니 빌뇌브 감독의 <컨택트>(2016)는 외계 생명체와 인간의 만남을 그린 SF영화다. 그런데 우주 전쟁, 미지의 세계처럼 전형적인 SF영화로 전개되지 않는다. <컨택트>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만약 새로운 시각 체계를 얻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는 영화다.

## 영화 속 철학적 메시지 <컨택트> 우리는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는가



**Movie Info**

개봉 2017.02.02.      국가 미국  
 등급 12세 관람가      러닝타임 116분  
 장르 드라마, SF, 스릴러      배급 유니버설 픽처스

사진출처: 유니버설 픽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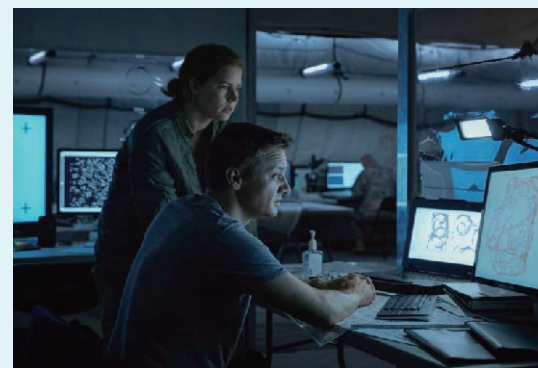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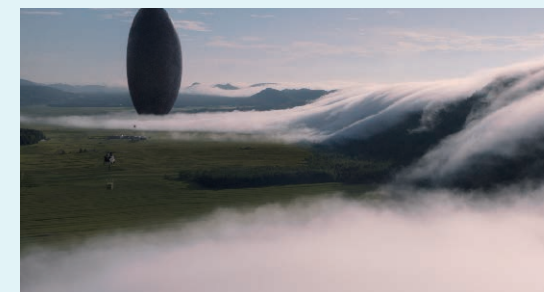
### 언어는 사유의 창

<컨택트>의 주인공 루이스는 저명한 언어학자로, 외계 생명체의 언어를 분석하는 임무를 맡는다. 차츰 그녀는 그들의 언어를 조금씩 풀이하게 되고, 마침내 인류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진다. 지구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자 외계 생명체는 “무기를 제공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놓는다. ‘무기’라는 단어에 전 세계는 요동친다. 그들이 지구를 침공하기 위해 왔다고 판단한 몇몇 나라에서는 외계와의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나 루이스는 ‘무기’가 어쩌면 ‘도구’를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영어나 중국어를 배우면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계를 보게 된다. 또는 승패가 뚜렷한 게임의 언어로 사고한다면 세상에는 승자와 패자,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싸움만이 존재하게 된다. 즉,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체계를 결정 지으며, 새로 습득한 언어가 사고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철학적 접근이 ‘언어 상대성 가설’이다. 언어가 사유의 창이기 때문이다.

### 비선형적인 시간

루이스는 외계 생명체의 언어를 알게 된다. 그러자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게 된다. 무엇보다 그녀의 사고체계를 바꿔놓은 것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지각이다. 시간은 어떻게 흐르는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과거-현재-미래라는 선형적인 흐름으로 지각한다. 그런데 과연 시간은 선형적으로 흐르는 것인가? 어쩌면 시간이 선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오랜 시간 철학과 예술의 중요한 화두였다. 베르그송이나 질 들뢰즈 같은 철학자들은 시간성에 깊은 고민을 내놓았다. 만약 과거, 현재, 미래가 선형적이지 않다면, 비선형적으로 동시에 지각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루이스는 외계 언어를 익힌 후 시간을 비선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루이스의 머릿속에는 미래가 기억처럼 떠오르고, 미래와 현재가 동시에 접친다. 현재의 시간 속에 있으면서 그녀는 미래의 자기 행동과 감정을 모두 한꺼번에 과거처럼 느낀다.



### Arrival, 도착 혹은 도래

이 영화의 원제는 ‘arrival’, 도착이다. 단순하게는 외계 생명체의 지구 도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달리 보면 “무기를 제공”한다던 외계 생명체가 루이스에게 준 것은 자신들의 언어, 즉 새로운 사고의 ‘도구’였다. 이 도구를 통해 루이스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루이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도래’다.

이제 루이스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까. 그녀는 알게 된 미래를 권력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미래의 딸이 희소병으로 일찍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결혼과 출산을 결심한다. 그녀에게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얼마나 당당하게 긍정하며 살아가는가에 있다.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세계 인식으로. 🧠



글\_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작가

### feat. 장기하와 얼굴들 - 새해 복

새해다. 어쨌든 희망을 품고 시작한다. 5천만 대한민국 인구가, 80억 세계인이 새해엔 '복(luck)'을 하여간 바라게 된다. 평소엔 비관적이었던 사람도 새해엔 잠시 모르는 척 '복'을 구하게 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사라질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이 말이 때때로 이상하다. 무엇보다 영혼이 없는 말이다. '복 받으라'는 거룩한 말이 이토록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새해에는 길에서 문득 만나는 지인에게도, 초면인 사람에게도, 형식적인 이메일 끝에도 '복 많이 받으시오'라는 말을 덩달아 붙인다. 12월 말부터 신정을 거쳐 구정을 지나기까지 꾸준히 이 인사는 여기저기서 반복된다.



행여, 안 그래도 불운을 타하고 있는데 누군가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설마 그 말을 한 사람을 타하지는 않더라도 그 인사말에 대해서만은 저항감이 밀려온다.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너무 무책임하게 여겨진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 복>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겠지.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 언니 오빠 동생 동창 친구 원수 아군 적군  
이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니가 잘해야지 (안돼) 노력을 해야지 (안돼)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보면 애써도 소용없어  
복만 받으면 돼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 마 (돼) 노력을 하지 마 (돼)”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원수, 아군, 적군'에게도 마구 해댄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 노래대로라면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인사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인사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이다. '복 많이 받으라'는 이 거창한 말은 이 거창함 때문에 의미와 무관하게 전달되고 결국 성의 없음을 증명하는 단서가 된다.

<새해 복>은 우리의 정신없음, 즉 매우 정상적인 분열증을 보여주기도 한다. 새해 복만으로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여 복만 받으면 된단다. 복만으로는 안 되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했다가, 또다시 절대 잘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란다. 복에 대한 우리의 양가 심리가 있는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이 양가 심리는 어디서 왔을까. 살기 어려움, 밥벌이의 고단함에서 왔을 거다. 살기 어려우니 복을 바라고, 그러나 복과 무관하게 사는 것은 여전히 고되고, 그 복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 사는 게 쉽지 않으니, 이런 키치(kitsch) 노래가 탄생한 것이다.

'복 받으라'는 말의 그 뜻을 정확히 새기면서 건네면 어떻게 될까. 가령, 나이 든 엄마가 삶에 지친 딸에게 “올해엔 우리 딸, 정말 복 많이 받아야지”라고 말하며 애뜻하게 바라본다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무뚝뚝한 딸은 아마도 그 상황이 어색하고 미안해서 “엄마도” 한 마디 남기고 그 자리에서 서둘러 이탈할 것이다. 정색하고 진정으로 '복 받으라'는 말을 듣는다면 정말 몸 둘 바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이즈음에서 '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언제 복 받았다고 여기는가. 가령, 추운 겨울날,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때다. 딱히 할 일도 없고, 당분간의 휴식이 예정된 시간이다. 달리 말하면, 행복을 위해서는 추운 날씨와 해야 할 일들이 필요하다. 춥지 않으면 따뜻한 집에 만족할 리가 없다. 할 일이 있지 않으면 일이 없는 휴식에 행복할 수도 없다. 복은 고된 의무와의 대비효과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 의무로 꽉 찬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복 받을 여지가 너무 많다. 새해에도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결론은, 잠시라도 실 때 그 '쉽'에 집중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것. 📺

⚠️ 주의: 글을 읽고 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을 밝히는 힘찬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들이 비록 녹록지 않지만,  
 국가 경제가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 기업인들의 역할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매서운 겨울 눈보라를 이겨내고 피워낸 봄꽃이  
 가장 화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인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낸다면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3년에도 부산상공회의소는  
 늘 지역기업과 함께하겠습니다.



# 2023년 부산상공회의소 시무식

부산상공회의소는 1월 2일 오전 11시 15분 국제회의장에서 새해 업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시무식에서 장인화 회장은 사무국 직원들에게 “부산경제가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비롯한 지역 현안들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사무국 직원들도 시무식을 통해 새해 부산 경제와 기업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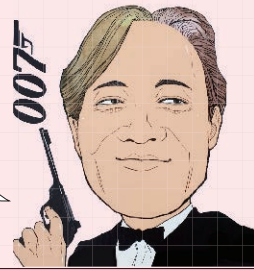


# Story of 캡틴장

START

제임스 본드 같이 멋진  
캡틴장을 보여주는 캐릭터

by 웹툰작가 배민기



제15회 교육메세나탑 시상식(2022. 12. 16.)



우리 인재들이 부산의 미래 아나겠습니까?? 시장님

제248차 경제포럼(2022. 12. 21.)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한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부산경찰청-부산상공회의소  
업무협약식(2022. 12. 20.)



범죄 피해로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합니다.

오스카 츠요시 주한일본국총영사 접견  
(2022. 12. 21.)



부산과 일본의 활발한 교류와 함께  
2030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BIE 총회 연계  
유럽 3개국 유치교섭단(2022. 11. 29.)



에펠탑 앞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합니다.

WOW! 😲



2030 부산세계박람회 BIE 총회 연계  
유럽 3개국 유치 교섭단(2022. 12. 5.)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부산과 보스니아도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시죠~~~

123

부산상공회의소 임직원 송년회(2022. 12. 26.)



을 한해도 우리 임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 경제포럼
- 업무협약
- 송년회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BIE 총회 참석 & 유럽 3개국 유치 교섭단 파견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지난 11월 28일(월)부터 12월 7일(수)까지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과 최삼섭 부회장, 권봉재 상임의원, 김운석 상임의원은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합동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71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 현장을 방문하고,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3개국을 방문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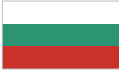
이번 유럽 방문은 국제박람회기구(BIE) 171차 총회를 계기로 BIE 주요 회원국 대표들과 면담하고 유럽 3국 최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추진되었다.


첫 번째 일정인 프랑스 제171차 BIE 총회 3차 유치 PT현장에서 부산은 BTS, 오징어게임 등 K-culture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다른 후보국들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부각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개최지 소개 영상 등을 통해 현지 실사에 대한 기대감 부여하였다. 또한 부산 엑스포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BIE 회원국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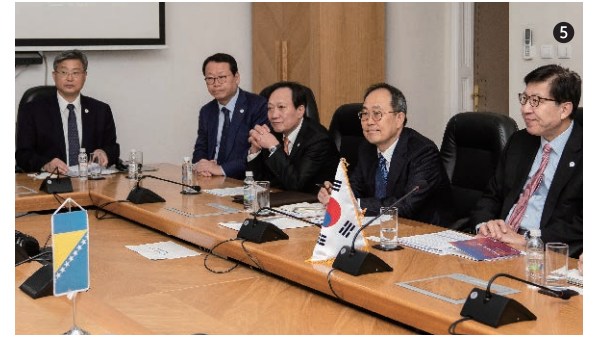


1 파리 센스강 부산 세계박람회 특화 홍보존에서 기념촬영  
2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 면담  
3 불가리아 소피아시 시장과 기념촬영  
4 불가리아 정부 청사 앞에서 교섭단 기념촬영



 불가리아에서는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국의 최첨단 기술, 전자, 에너지, 바이오, 친환경, 관광 등 협력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자연스럽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담을 이끌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는 대외무역경제부 코샤라츠 장관과 외교부 체키치 차우셰비치 차관을 만나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지지를 요청하였다.




5 보스니아 외교차관과 면담  
6 산마리노 외교장관, 관광장관 공동면담  
7 산마리노 외교장관, 관광장관과 기념촬영



“ 올해 4월로 예정된 BIE 실사에서 부산의 유치 열기와 시민들의 열망을 보여준다면 부산 개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 입니다. ”

 산마리노에서는 국가원수인 베르티 집정관과 치아바타 집정관을 비롯하여 베카리 외교장관, 아마티 관광장관을 만나 세계박람회는 문화, 경제, 관광 등 여러 분야가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유치 교섭단 유럽 방문을 통해 그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유럽 국가들과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분위기를 확산시킨 만큼 향후 있을 BIE 실사에서도 부산의 유치 열기와 시민들의 열망을 보여준다면 부산 개최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 보스니아 외교차관에게 기념선물 증정

# 글로벌과 함께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편지를 타고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글로벌 외국인들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에 있는 부모님, 친구들에게 부산에서 보내는 편지를 소개합니다.



Cambodia

형 호일리

엄마 아빠 잘 지내요? 건강은 어때요?  
저는 잘 지내요. 건강하고 공부도 문제없어요.  
요즘 한국 생활이 익숙해서 부산에서 사는 것이 정말 좋아요. 엄마 아빠 알고 계셨나요? 부산은 바다와 산이 풍부한 지역이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부산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여러 관광지가 많고 매년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돼요. 몇 달 전에 학교에서 우리 팀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UCC 대회에 참가해서 1등을 했어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프로젝트를 유학생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줘서 너무 기뻐요, 부산은 알면 알수록 많은 매력이 있기에 꼭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면 좋겠어요. 졸업식 날에 기회가 된다면 엄마와 아빠가 아름다운 도시 부산을 방문해서 같이 여행하면 좋겠어요. 그럼 건강하게 지내세요. 딸의 사랑으로 호일리 올림.



China

황진광

사랑하는 부모님께,  
잘 지내고 계시죠? 집을 떠난 지 벌써 십 개월이 되었어요. 부산에는 눈이 왔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부산은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예요. 부모님, 그리고 부산에서 2030년에 엑스포가 열릴 수 있네요. 이렇게 아름답고 현대적인 대도시 부산에서 엑스포가 꼭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 박람회에서는 인류를 위한 많은 기술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네요. 기대되지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부산에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꼭 개최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꼭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부산을 보여 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들 올림.



Italy

트라베르소 미리암

여러분 안녕~^^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부산을 여전히 사랑해!  
부산이 살기 좋은 이유는 바로 날씨와 음식, 바닷가와 친절한 사람들 때문이야! 그리고 부산은 여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도 많고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들도 많아. 이런 부산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어. 날씨와 자연의 색깔이 예쁜 부산에서 너희들을 기다릴게!  
너희들도 부산에 오면 반드시 좋아할 거야!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려서 너희들과 그때 꼭 같이 와서 보고 싶어!



Japan

니부 유키

일본에 있는 가족들,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부산은 겨울에도 많이 춥지 않아서 여행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동안 저는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 국제영화제나 여러 관광지를 여행했어요. 부산은 정말 볼거리가 많은 재미있는 도시예요. 이런 부산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 5월에 우리 학교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만든 영상이 1등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2030년에 부산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되어서 모두 부산에 오면 좋겠어요. 2025년에는 우리 일본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만큼 2030년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 부산에서 박람회가 개최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럼 잘 지내세요. 유키 드림



# 부산이 낳은 명품, 르노코리아자동차

# XM3

부산의 터줏대감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이 XM3 생산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올해 XM3 가솔린 모델부터 E-Tech 하이브리드까지 누적생산 20만대를 넘기고 유럽 시장에도 안착시키는 등 재도약했다.

## 가솔린에서 E-Tech 하이브리드까지 국내외 시장서 인정받은 XM3 2022년 누적생산 20만대 넘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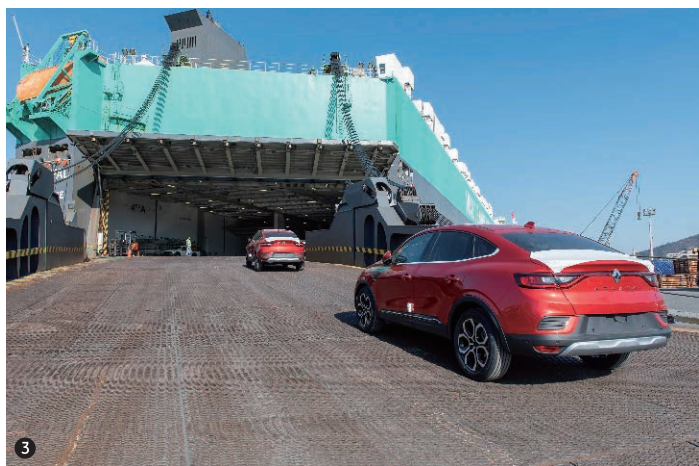
### XM3 2년 8개월 만에 누적생산 20만대 달성

르노코리아자동차에 따르면 2022년 9월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XM3의 누적생산이 20만대를 돌파했다. 이번 20만대 달성은 2021년 11월 10만대 달성보다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 10개월 만에 10만대를 추가 생산해 더욱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20년 1월 처음으로 부산공장에서 XM3를 생산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20만대를 달성한 것이다. 지난 9월 26일 기준 부산공장에서 생산된 20만 3,000여대의 XM3 중 국내 판매 모델은 약 6만 4,000대, 수출 모델은 약 13만 9,000대를 차지했다. 수출 모델 중 60%인 8만 2,000여대는 XM3 E-Tech 하이브리드이다. XM3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효자 모델을 넘어 이제 부산공장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XM3 E-Tech 하이브리드가 특히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끈 덕분에 XM3는 부산이 낳은 명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



①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 공장  
②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에서 XM3 20만대 생산 돌파 기념 촬영





- ① 부산 공장에서 생산 중인 XM3
- ② XM3가 첫 유럽수출을 위해 선적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
- ③ 유럽수출을 위해 선적되고 있는 모습

르노코리아,  
유럽서 'XM3 하이브리드' 인기  
'최고의 하이브리드차' 부문 1위

**유럽서 큰 인기 끄는 XM3 E-Tech 하이브리드**

지난 6월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영국 온라인 자동차 판매 사이트 '오토 트레이더'가 발표한 2022년 뉴 카 어워즈의 최고 하이브리드차 부문에서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렉서스 RX 450h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실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차량을 직접 경험한 뒤 디자인, 성능, 신뢰성, 유지 비용 등 16가지 항목을 직접 평가했다는 점에서 이 상이 더욱 의미 있다. 신차 구매 소비자 15만 6,500명이 참여한 상이다. 지난해 스웨덴 자동차 전문지 '테크니क्स 바를드'가 실시한 하이브리드 모델 종합 평가에서도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아우디 Q5 스포트백 TFSI, 볼보 V60 B4, 폭스바겐 골프1.0,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을 제치고 최고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국내(KNCAP)와 유럽(유로 NCAP)의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얻어 안전 부문도 인정 받은 셈이다.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XM3 E-Tech 하이브리드의 구동 시스템은 가장 전기차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속 50km 이하 도심구간에서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최대 75%까지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가능해 경쟁 모델보다 이점이 있다.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구동 전기모터(36kW/205Nm)와 발전 기능을 겸하는 고전압 시동모터(15kW/50Nm)로 구성된 듀얼 모터 시스템이 하이브리드에 최적화된 1.6 가솔린 엔진, 클러치리스 멀티모드 기어박스과 결합해 성능을 낸다. 배터리 잔여 용량과 운행 속도에 따라 100% 전기차 모드 선택이 가능한 'EV 버튼',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 브레이크와 유사한 감속과 함께 배터리 충전이 이루어지는 'B-모드' 등도 전기차와 비슷한 점이다. 전기차를 사기에 부담스러운 소비자라면 충분히 XM3 E-Tech 하이브리드로 전기차 감성을 느껴볼 수 있다.

**F1에서 쌓인 노하우와 기술 적용**

전기차와 흡사한 구동 시스템으로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도심구간에서 뛰어난 연비 효율을 보여준다. 17인치 타이어 기준 공인 복합 연비는 17.4km/l, 도심구간 연비는 17.5km/l, 고속도로 연비는 17.3km/l이다.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르노그룹 F1(포뮬러원) 머신에 도입된 하이브리드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가 주도해 완성했다. 에너지 효율은 높고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까지 가진 하이브리드가 XM3 E-Tech 하이브리드이다.

**하이브리드를 위한 수준급 AS까지 철저히 준비**

르노코리아자동차는 XM3 E-Tech 하이브리드의 AS까지 명품에 걸맞은 수준으로 확충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출시 전에 고전압 전문 정비 인력을 AS 네트워크에 대거 배치했다. 직접 자사 프로그램으로 교육한 전문인력이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간 배터리 때문에 고압 전류가 흘러 고장을 진단하고 정비할 수 있는 체계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230V의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돼 있다. 전국에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AS 네트워크는 414개로 어디서든 가깝게 AS를 받을 수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이 중 절반인 206곳에 하이브리드 전문 인력을 배치해 하이브리드 고객들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했다. 르노그룹이 운영하는 정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부산 기장에서 열린 XM3 E-Tech 하이브리드 Media 시승 행사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이 설명하는 모습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기본 단계인 '메카닉'과 중간 단계인 'EM', 고급인 '코테크' 정비 전문가까지 양성된다. 가장 높은 수준인 코테크는 정비 네트워크의 테크니컬 리더로, 3년마다 치러지는 갱신 평가를 받는 등 철저히 전문가를 관리하고 있다. EM과 코테크 과정을 거치면 고전압 시스템 전문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EVS'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 관계자는 "XM3 E-Tech 하이브리드로 부산 공장의 저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내외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제품을 완성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르노코리아자동차 뉴비전 선언식 기념촬영



CES 2022 전시참가\_권태형 대표, 우상욱 대표

**StartUP**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소개합니다

## 물리학과 양자역학기반의 AI 신약개발기업 (주)팜캐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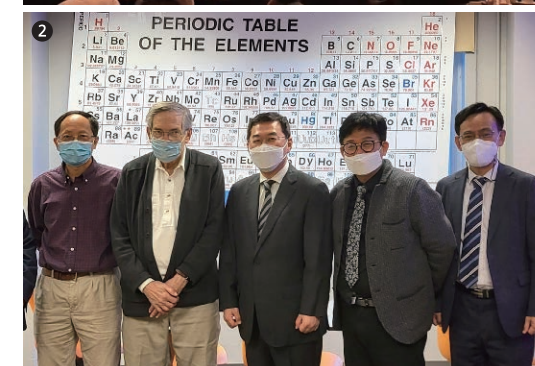
‘기술의 컨버전스(융합)’가 미래의 핵심기술 트렌드가 되는 시대, 팜캐드 기술의 차별성은 바로 AI 기술에 양자물리학을 접목했다는 점이다. 팜캐드는 권태형 대표이사와 부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우상욱 대표이사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 3월, 부산을 본사로 설립되었다.



연사로 초청된 우상욱 대표이사가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2 (BIX2022)’에서 기업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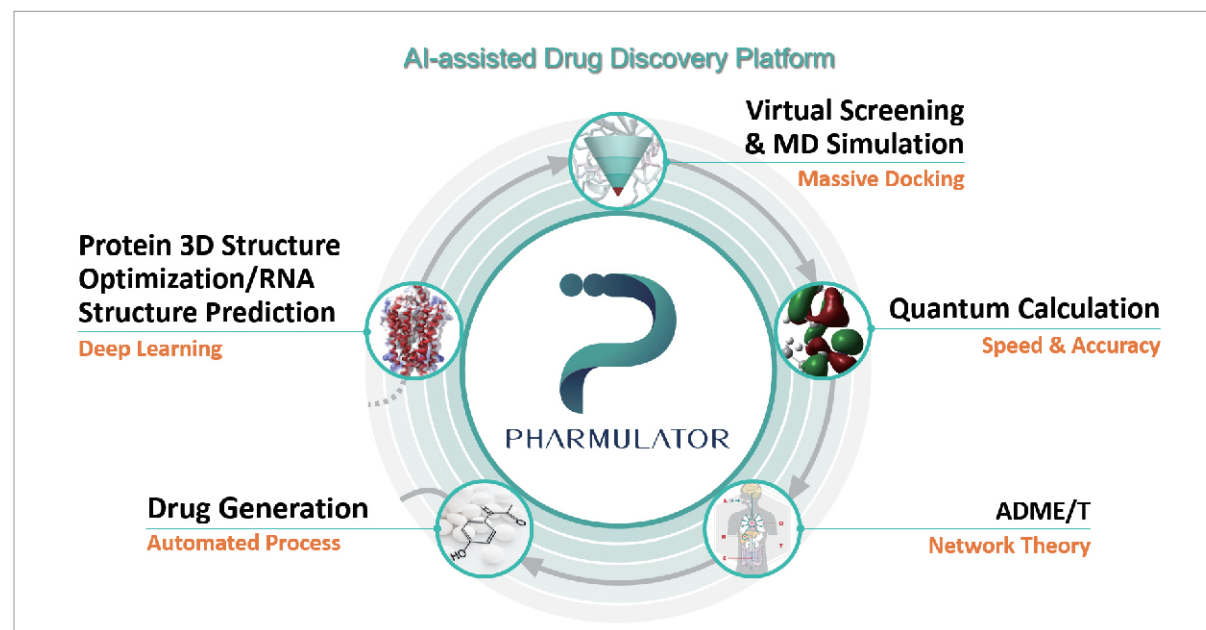
###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팜캐드

팜캐드는 우상욱 대표를 비롯하여 물리, 화학, 생물, 의학, IT 등 다양한 지식이 융합된 전문가들로 R&D 센터의 연구진을 구성하고, 물리학적 접근에 AI를 접목한 기술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집약시킨 파물레이터(Pharmulator)를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부경대학교 내 IDC(Internet Data Center)를 설립하였고, 수백 대의 고성능 GPU 서버를 구축,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였으며, 생물정보학, IT, 계산화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를 영입하여, public DB뿐만 아니라, 특정 용도에 맞게 재가공된 고순도 자체 데이터셋 DB를 일평균 2GB 이상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축된 DB에는 양자 계산 및 단백질-단백질, 단백질-약물 네트워크 데이터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된 AI power를 이용하여 신약후보 물질 도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다. 팜캐드는 컴퓨터로 약물을 설계하는 연구소(dry lab)와 효능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소(wet lab)를 모두 운영함으로써 AI 기반 약물 설계 기법과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역량을 확보하고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AI 신약 발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① 팜캐드 주최로 열린 신약개발 컨퍼런스  
② 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교류세미나

**PharmCAD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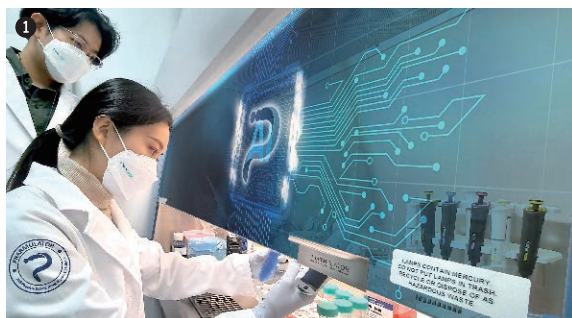
Pharmulator의 AI 신약개발 모듈

Platform	Classification	Disease	Discovery	Pre-Clinical	Clinical	Collaborator	Market size [Unit: US\$bn/YR]
PharmVAC	RNA & DDS <sup>(1)</sup>	COVID-19 (Vaccine)	Ongoing Phase 2a			EYEGENE Inc.	68.3/2022
		Cancer (Vaccine)				-	0.9/2027
		DDS (LNP)				-	9.3/2028
PHARMULATOR	NCE <sup>(2)</sup>	Blood Cancer (AML <sup>(3)</sup> )				KRICT	3.6/2027
		Solid Tumor (Glioblastoma)				KRICT	4.2/2028
		Blood anticoagulant (NOAC <sup>(4)</sup> )				NORTH CAROLINA	45.6/2026
		Autism (ASD <sup>(5)</sup> )	Ongoing Phase 2 <sup>(6)</sup> Repurposing			SNUH <sup>(7)</sup>	4.6/2026
		COVID-19				Pharma company C	6.0/2023
		Solid Tumor (ovarian cancer, prostate cancer)				Redipharm	ovarian cancer 6.6 / 2026 prostate cancer 30.1 / 2029
		Solid Tumor (Cancer immunotherapy)				GEN	34.7 / 2030
		Neurofibromatosis				ISU ABXIS	19.2 / 2028
		PharmTAC	PROTAC <sup>(8)</sup>	Solid Tumor			

팜캐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차별화된 AI 플랫폼으로 기술력 증명

회사의 대표적 AI 기반 플랫폼인 파물레이터(Pharmulator)는 ▶대량의 약물-단백질 간 도킹을 이용한 스크리닝 ▶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한 독성 및 off-target 예측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 생성 및 발굴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예측 및 모델링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단백질-리간드 시스템 분석 ▶화합물의 양자 계산 데이터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새로운 저분자 화합물(small molecule) 발굴 플랫폼으로서 현재 2.5 Version까지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파물레이터의 우수한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RNA 백신 개발을 위해 팜백(PharmVAC), 타깃 단백질 분해제 개발용 팜탁(PharmTAC) 등 확장성 높은 AI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규한 합성신약, PROTAC, RNA 백신/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팜캐드는 신약 설계 단계에서 후보물질에 대한 양자역학 계산 및 단백질과의 결합력 예측, 세포 내 분자동역학(molecular dynamics) 시뮬레이션 등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유효한 약물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해 낼 수 있다. 당사 기반 기술의 핵심인 “물리학적 계산 DB와 이를 학습한 인공지능(AI)” 플랫폼은 신약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① 팜캐드 바이오어세이랩(Bioassay Lab)  
② '바이오코리아 2022(BIO KOREA 2022)'에 참가하여 전시부스에서 당사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팜캐드 직원들

현재 자체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을 포함하여 신경섬유종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고형암(난소암, 전립선암)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자폐증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물 최적화 사업 등 다양한 질환의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앞선 파이프라인으로는 COVID-19 mRNA 백신을 포함한 2건의 신약후보 물질이 임상에 진입하였다.



ICT 특허경영대상 표창장, 중소기업부장관 표창장,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과학기술진흥유공자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장, 국무총리 표창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시적응상



FDA인증서, ISO9001\_정보보호경영 시스템인증서, ISO27001\_정보보호경영 시스템인증서, LMO신고확인서, 지식재산경영인증서

R&D 중심의 기업문화, 특허 및 수상 실적에서도 돋보여

앞서 소개한 플랫폼 기술 및 이로부터 도출된 신약 후보물질의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특허 27건 및 상표 25건을 출원하였고, 현재 3건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 등록되었다. 또한 회사의 수상실적으로는 ▶2022 AI 코리아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AI 적용상) ▶2021 ICT 특허경영 대상 기업부문 최고상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AI 적용상) 수상, 한국경제신문과 KT 주관의 Korea AI Start up 100 기업 선정, 2023년 부산시 7대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등의 쾌거를 이루었다. 팜캐드의 기술 담당 대표이사인 이상욱 대표의 수상 이력으로는 ▶2022년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진흥유공 부문 국무총리 표창 ▶2021년 기술혁신부문 중소기업부장관상 ▶2021년 보건산업진흥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2021년 과학기술 진흥 유공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 등이 있다.

2023년은 “양자 점프(quantum leap)”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간

‘모소 대나무(moso bamboo)’는 4년 동안 단 3cm만 자라는 희귀 대나무이다. 이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들은 조금씩

하지 않고 매일 물과 양분을 주며 묵묵하게 길러낸다. 씨를 뿌린 지 5년이 지나면 모소 대나무는 하루에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해 6주가 지나면 울창한 숲을 이룬다고 한다. 이렇듯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물리학 현상을 ‘퀀텀 리프(quantum leap·양자 도약)’라고 한다. 펜데믹 이후에도 “AI 활용 신약 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팜캐드의 깊고 단단한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2023년은 ‘신뢰성’을 확보한 AI 신약 개발 전문기업으로서 “양자 점프(quantum leap)”를 이루는 글로벌 도약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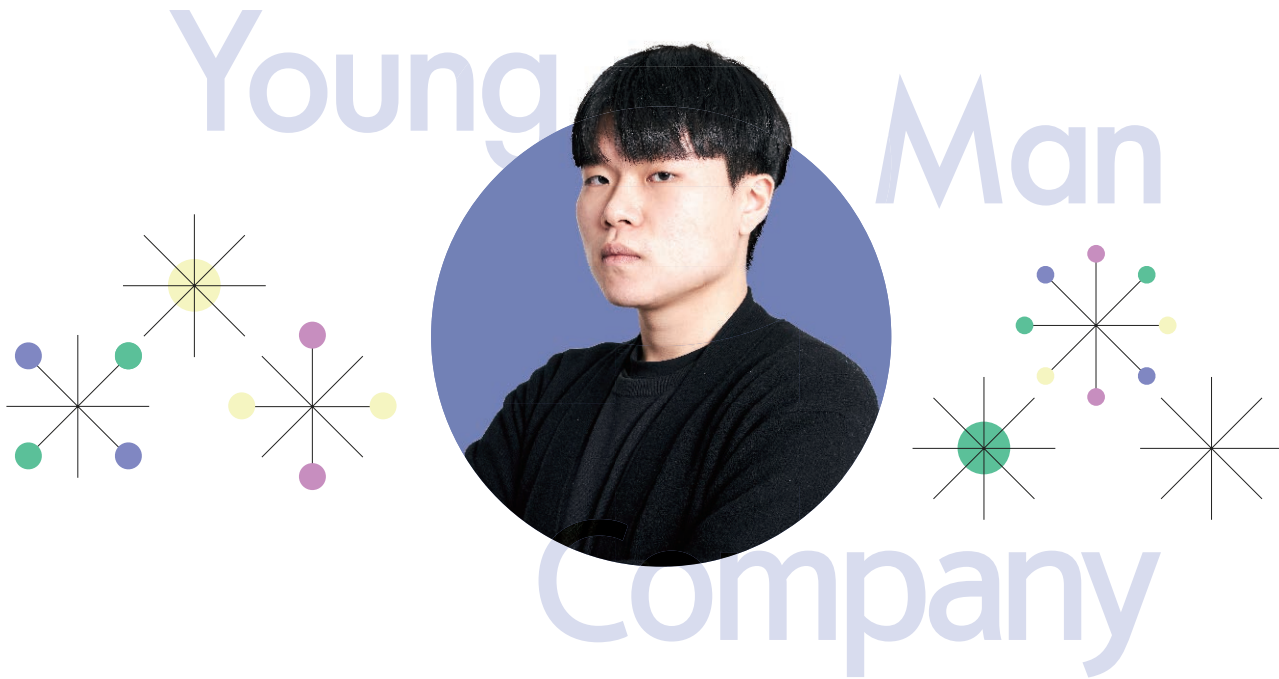


2021 ICT 특허경영대상 최고상인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우측 권태형 대표)

## 부산 청년이 새해 지역기업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지역 청년과 지역 기업,  
 茁락동시가 필요합니다.

글\_ 박주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동아대학보 선임기자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박주현입니다. 부산 경제를 책임지는 상공인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산 청년으로서 그리고 부산의 취업준비생으로서 새해 소망을 담은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부산 시민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낄 것입니다. 다이내믹 부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역동적인 이 도시는, 역사와 발전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어우러진 도시는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산뿐입니다.

### 기 회 가 없 는 부 산

그렇습니다만, 이 매력적인 도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고 있습니다. ‘제2의 도시’라는 명성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3만 명의 청년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주로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서울로 떠나거나 떠날 의향이 있는 친구가 수도룩합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체로 부산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족과 친구가 있는 이곳이, 지칠 때면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을 다독거릴 수 있는 이곳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비롯해 기회가 적은 부산을 떠나, 기회가 많은 서울로 향할 수 없는 처지에 청년은 좌절합니다. 저 역시도 기회를 찾아 부산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상공인분들께서도 청년이 떠나가는 현실에 함께 비애를 느끼실 거라 사료됩니다. 청년 없이 지역 기업들의 사력만으로는 지역사회가 활력을 얻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새해에는 부산 청년과 부산 상공인 모두가茁락동시(茁락同時)의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병아리는 껍질을 깨부수고 부화합니다. 병아리는 껍질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안에서 부리로 껍질을 쪼아뺏니다(啐). 어미 닭은 밖에서 같이 껍질을 쪼아줍니다(啄).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茁락동시입니다.

### 청 년 이 있 어 야 미 래 가 있 습 니 다

부산 기업과 부산 청년은 운명공동체입니다. 부산 기업이 어려움에 닥치면, 부산 청년도 어렵습니다. 부산 청년이 힘들면, 부산 기업도 힘들습니다. 부산 청년이 앞에서 나오기 위해 부산 상공계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에게는 높은 임금, 안정적인 근로조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건을 고려하기에 앞서 부산은 기회조차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상공계가 나서서 기회를 만들어주십시오 합니다. 예컨대 대학과 긴밀히 연계해 인턴과 같은 직무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방안이 실무역량도 쌓는 경험도 얻으면서, 직무 연관성도 얻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년이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공계가 앞서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30 부산 엑스포는 부산의 미래를 바꿀 전환점입니다. 또한, 부산 청년들의 미래를 바꿀 계기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를 통해 부산의 인프라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산업 구조 또한 다변화할 것입니다. 이 또한 부산 청년들에게는 부산이라는 터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공인 여러분께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앞장서시는 만큼 저희 청년들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상공인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023년 10대 소비트렌드 전망

글\_ 최지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 학력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

## 주요경력

- 삼성전자 임직원 교육(2018,2019,2020,2021)
- 삼성전자 경영혁신센터 주최 '2021 SEC Innovation Fair' 강연
- KEB 하나은행(본점) 직원대상 '트렌드 코리아'(2019.2020.2021.2022)
- 2021 ICCA(국제컨벤션협회,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기조연설
- 머니투데이 서울 퓨처포럼 2021 강연

## 주요 저서

- <더현대서울 인사이트> 공저자
- 트렌드코리아 2012 ~ 2022 공저자



물가상승과 불황이라는 엄청난 위기감 속에 2023년이 시작되었다.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이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발표한 10대 키워드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보자.

**01 평균 실종**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대푯값으로서 평균이 의미 있으려면 해당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분포의 정규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실종 트렌드는 무난한 상품, 평범한 삶, 보통의 의견, 정상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규분포로 상징되는 기존의 대중(mass) 시장이 흔들리며, 대체 불가능한 탁월함·차별화·다양성이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02 오피스 빅뱅**  
일터가 송두리째 달라지고 있다. 인재가 떠나가고, 조직 문화가 바뀌며, 노동시장의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 이직과 퇴직 열풍 속에서 인재를 지키려는 조직의 노력이 주목받는다. 연봉이나 성과급 인상은 기본, 젊은 직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복지나 눈길을 끈다. 원격근무 지원·거점오피스 제공·워케이션 기회 마련 등 물리적 공간의 변화도 작지 않다. 오피스 빅뱅은 개인·조직·시장의 변화를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03 체리슈머**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소비자들은 비용 대비 효용이 뛰어난 것만 쏙쏙 골라 합리적으로 구매하려 한다.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알뜰 소비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를 '체리슈머(cherry-sumer)'라고 명명한다. 체리슈머는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조각 전략'으로 실속을 챙기고, 함께 모여 소비하는 '반반 전략'으로 절약을 도모한다. 그리고 '말랑 전략'으로 유연한 계약을 찾으며 리스크를 줄인다.

**04 인덱스 관계**  
소통의 매체가 진화하면서 관계 맺기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 요즘의 관계 맺기는 목적 기반으로 형성된 수많은 인간관계에 각종 색인(index)을 땀다 붙였다 하는 '관계 관리'에 가깝다. 현대인의 인간관계는 "친하다/안 친하다"의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는다. 선망하는 '인친'-함께 덕질하는 '트친'-최신 뉴스를 알려주는 '페친'-동네에서 만나는 '실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게 될 것이다.

**05 뉴디맨드 전략**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상향 표준화되는 시장 상황에도 불가항력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수요 창출 전략을 '뉴디맨드(New Demand)' 전략이라고 명명한다. 소비자가 열광하는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의도적으로 궤도를 이탈하여 최대한 이질적인 것과 부딪히며 집요하리만큼 파고들고, 전복적 사고로 무장하며 혼란해야 한다.

**06 디깅모멘텀**  
“〇〇에 진심”인 사람이 늘고 있다.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디깅모멘텀(Digging Momentum)'이라고 지칭한다. 디깅모멘텀은 '멀티 페르소나' 시대에 '찐자아'를 찾으려는 노력이자, 코로나 사태와 불경기 속에서 흔들리는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발돋움의 '모멘텀'을 만들려는 '디깅러'들을 주목하라.

**07 알파세대가 온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이자, 1980년 대생 밀레니얼 세대 부모에게서 태어난 세대다. 알파세대는 누구나 쉽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틱톡'을 주요 SNS로 활용하고, '국영수코'로 불리는 코딩 학습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인다. '자본주의 키즈'의 후예답게 경제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이들은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다.

**08 선제적 대응기술**  
고객이 필요를 표현하기 전에 고객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먼저 솔루션을 제공해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기술을 '선제적 대응기술(Proactive Technology)'이라고 명명한다. 고객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을 구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각광받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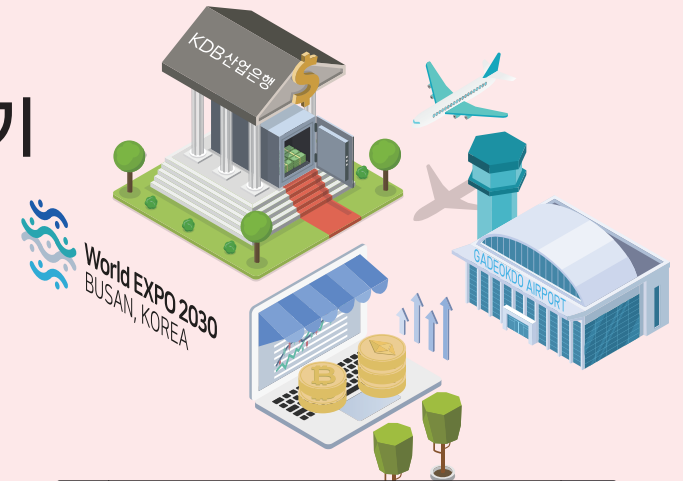
**09 공간력**  
공간의 힘을 다시 보라. 공간력은 공간 자체의 힘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력(引力)', 가상의 공간과 연계되어 효율성을 강화하는 '연계력', 메타버스와의 융합을 통해 그 지평을 넓히는 '확장력'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제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유통의 공간을 넘어,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고객의 입소문을 유도하는 매체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10 네버랜드 신드롬**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이보다 어리게 사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 되고 있다. 영원히 아이의 모습으로 사는 피터팬과 그 친구들이 사는 곳, '네버랜드'의 이름을 따서 우리 사회에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터팬들이 많아지는 트렌드를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어른이들을 주목하라. 🌟



## 2023년 새해 부산경제 주요 현안 사업 알아보기

2023년은 부산 경제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는 한해입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과 같이 크고 중요한 사업들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앞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현재 부산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뽑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국제박람회기구(BIE)가 부산 현지 실사를 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6월에는 유치 경쟁국 4차 PT와 11월 5차 PT를 실시한 후 11월중 최종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BIE 실사 기간 동안 부산 시민 모두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열정과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2023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식 일정

- '23년 4월 3일 ~ 7일 국제박람회기구(BIE) 부산 현지 실사 (사우디 리야드 3월)
- '23년 6월중 개최지 선정 4차 PT
- '23년 11월중 개최지 선정 5차 PT
- '23년 11월 ~ 12월중 개최지 결정

###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이전인 2029년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부산시는 2029년 개항을 위해 최근 매립식과 부유식의 장점을 섞어 매립 규모를 줄이고 플로팅 병행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시공하는 것을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국토부도 당초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하였지만 부산시의 노력에 힘입어 '23년 8월까지 시행할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플로팅 공법을 포함한 부지 조성방안을 검토 분석하기로 한만큼 용역 이후 실시 설계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3년 연내 착공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2023년에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말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성장지원실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만들어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동남권 조직을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내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만큼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명시한 산은법도 개정 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산을 실질적인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협중앙회 부산 이전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2023년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롯해 부산 금융 중심지에 중요한 1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작년 12월 부산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부산시는 FTX파산 신청, 위믹스 상장 폐지 등 가상 자산의 투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성을 확보한 거래소로 시장 질서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는 내년 지주회사(1개)와 자회사(3개), 시장 관리 기구(3개) 등 총 7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합니다. 거래 대상은 증권형·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이원화하고 상장·평가와 시장 감시·감독, 예탁·결제를 책임지는 3개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은 부산의 금융 인프라를 한단계 도약시킬 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이 기대됩니다.

그림 윌트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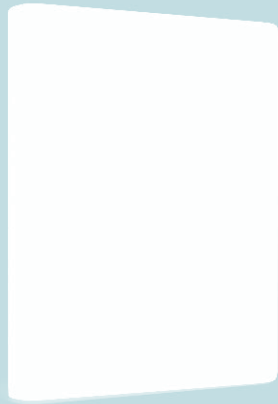
#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 워런 버핏 스승에게 배우는 부의 사고방식



## 국민가게 다이소 창업주 박정부 회장의 본질 경영



### 천원을 경영하라

박정부 | 쌤앤파커스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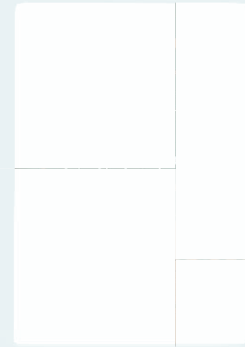
알면 알수록 놀라운 회사, 아성다이소 창업주 박정부 회장이 최초로 직접 공개한 다이소의 성공비결을 이 책에 담았다. 마흔다섯 늦깎이 창업자로 시작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격차를 만들어낸 과정 하나하나를 자세히 공개했다. “유통업계의 신화적 존재”라는 명망을 증명하듯 ‘원자(原子)와 같은’ 성실함과 집요함으로 ‘티끌로 태산을 만들어낸’ 이야기다. 소설처럼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상품기획, 매장운영, 품질관리에 관한 경영의 금과옥조를 배울 수 있다. 천 원을 경영해본 적 있는가? ‘그깟 천 원쯤’ 하고 천 원 한 장의 무게를 가벼이 여긴 적은 없는가? 모두가 너무 쉽게 일확천금을 이야기하는 시대, 지갑 속 천 원 한 장에 올인해 매출 3조 회사를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 벤저민 그레이엄의 13가지 부자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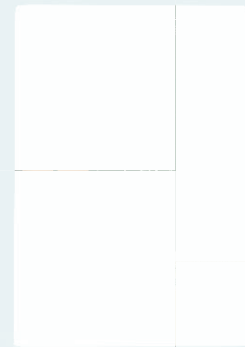
이지성 | 차이정원 | 16,000원

유튜브 <이지성TV>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2020년 12월부터 13개월 동안 방송된 ‘벤저민 그레이엄 강의’를 정리한 책으로, 경제 대폭락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그레이엄의 성공 비법을 담고 있다. 그레이엄의 명저서 《증권분석》, 《현명한 투자자》를 비롯하여, 그의 유일한 자서전 《벤자민 그레이엄 자서전》까지 아우른 이지성 작가의 탁월한통찰로, 20세기 위대한 투자자가 21세기 투자자에게 던지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 재해석된다. 투기와 투자의 개념, 공포와 탐욕을 다스리는 법, 가치투자와 안전마진, 공격적 투자자와 방어적 투자자가 지녀야 할 태도 등 그레이엄이 세운 투자 원칙을 되새기는 한편, 경제 위기의 대처법, 안전마진의 현대적 의미, 자본 시장의 미래 등 경제 대격변의 시대에서 부를 이해하는 방식과 대처법은 실로 명쾌하게 다가온다. 나아가 저자는 자본시장은 결국 우상향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희망적인 미래를 예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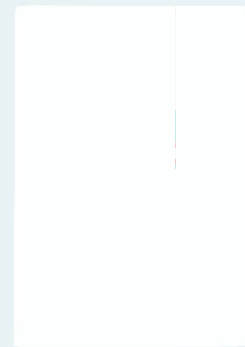
## 성공철학의 걸작 21세기 업그레이드 에디션



## 세상에 변화를 이끄는 리더들에게 배우는 지혜



## 내 자산을 지키는 최고의 경제 로드맵



##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옹 힐 | 반니 | 18,000원

최초로 부자의 마인드셋을 정리한 나폴레옹 힐의 저서로, 당대 자수성가한 부자 507명의 성공 비결을 정리한 책이다. 나폴레옹 힐은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의 부의 비밀을 13가지로 정리한다. 열망,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 암시, 전문 지식, 상상력, 체계적인 계획, 결단력, 끈기, 조력 집단의 힘, 성 에너지, 잠재 의식, 뇌, 육감으로 책의 각 장마다 하나의 원칙이 소개된다. 이번에 출간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21세기 에디션은 편저자의 해설을 덧붙이면서 현대에 맞는 사례를 보강하고, 나폴레옹 힐의 여러 저작물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선별해 추가했다. 저자가 평생을 통해 알리려 했던 성공철학의 정수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권되어 국내에 출간된 기존 도서가 놓친 오리지널 도서의 감동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세상을 바꾼 생각의 힘

이학영 | 한국경제신문 | 17,000원

보다 나은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고 싶거나 미래의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리더가 되어 인생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싶은 사람들에게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보인 <이학영의 뉴스레터>가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흘러 400회를 넘겼다. 이 책은 <이학영의 뉴스레터> 가운데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원 들을 비롯한 5만여 명의 독자들에게 찬사와 큰 호응을 이끈 이야기들을 엄선하여 엮은 것으로 2년 전 출간된 《리더를 키우는 생각의 힘》의 후속 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고개 돌린 것에 도전해 위대한 성취를 이뤄내고,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인류 문명의 한 단계 진보를 이끌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리더십과 자기계발에 필요한 핵심 메시지를 체득할 수 있다.

## 인플레이션 게임

이낙원 | 원앤원북스 | 17,500원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 40여 년 만에 가장 가파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쉬어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무엇이고, 왜 일어났으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응해야 할까? 《인플레이션 게임》에 해답이 있다. 이 책은 고착화된 저성장 국면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가 양적완화라는 마약을 통해 어떻게 국부를 늘려가는지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다. 자산가들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돈을 보호하는 방법이 궁금한가? 이 책을 통해 숨어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 바란다. 🚀



# Busan Economic News

2023 01 January

## 은산해운항공(주)

### 양재생 회장 함양군장학회에 1억원 전달

은산해운항공(주)은 11월 30일 양재생 회장이 고향 함양의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1억원을 (사)함양군장학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재생 회장은 함양 수동면 남계마을 출신으로 2012년부터 수동초등학교 및 수동중학교와 관내 2개 고교에 꾸준히 총 1억 3,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양재생 회장은 “고향의 후배들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펼쳐 사회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이번 장학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대선주조(주)

###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 수상

대선주조(주)는 12월 1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로 부터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은 대한적십자사에 1,000만원 이상 기부한 회원에게 주어지는 포상이다. 대선주조(주)는 올해 3월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5년간 총 1억원을 후원하는 적십자 아너스클럽에 가입한 바 있다. 대선주조(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함께 소외계층에 희망의 손길을 전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 세정나눔재단

### 동아대에 장학금 2,000만원 전달

세정나눔재단은 12월 6일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회의실에서 '2022학년도 세정나눔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은 동아대 학생 20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세정나눔재단은 지난 2011년 2,000만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25명의 학생에게 총 1억 8,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세정나눔재단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서 모범이 되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주)영광도서

### 독서감상문 공모 시상식 개최

(주)영광도서는 12월 10일 부산진구 영광도서문화홀에서 '제33회 영광 독서감상문 현상공모'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하는 '영광 독서감상문'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모전이자 전국 최고의 독후감 공모전으로 알려져 있다. (주)영광도서 관계자는 “올해로 33년째를 맞은 영광 독서감상문 현상공모전이 2020년부터는 초·중·고등부로 나뉘었고, 올해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참석한 것을 보니 미래가 밝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 대한제강(주)

### 적십자 '희망나눔 성금' 3,000만원 전달

대한제강(주)은 12월 11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희망나눔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제강(주)은 1954년 창업해 철근, 발렛 등을 판매 수출하고 있으며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학금 지원,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해 저소득층을 돕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여한 오형근 대한제강(주) 부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나눔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사회공헌 사업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주)세운철강

### 신정택 회장 대한적십자 '명예대장' 수상

(주)세운철강은 12월 12일 2021년부터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정택 회장이 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명예대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회원유공장 명예대장은 누적 기부금액 1억원 이상 기부자에게 수여되고 있다. 또한 신정택 회장은 지난 5월 적십자 고액기부자 모임인 적십자 아너스클럽에 가입해 명예의 전당 등재식도 가졌다. 신정택 회장은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많은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Busan Economic News

2023 01 January

## 조광페인트(주)

### 부산대에 연구발전기금 4억 1,500만원 기부

조광페인트(주)는 12월 12일 부산대학교와 ‘산학협력연구 및 연구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연구발전기금 4억 1,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연구·산학 분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우수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창의적 프로젝트형 융복합 연구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광페인트(주)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에 부족함 없이 지원해 기업에 등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고,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신기술을 개발해 업계를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성산업

### 김경조 대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적십자회비 1억원 전달

경성산업은 12월 18일 김경조 대표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적십자회비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경조 대표는 매년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펼치고, 부산대학교병원 내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성산업 김경조 대표는 “기부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인의 덕목이라 생각하는 만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주)BNK금융그룹

###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성금 1억 5,000만원 기부

(주)BNK금융그룹은 지역 이웃과의 나눔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희망 2023 나눔캠페인’에 성금 1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BNK는 2011년부터 매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되는 ‘희망 나눔캠페인’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BNK가 전달한 성금은 각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이웃들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난방비 등으로 사용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BNK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지역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동아플레이팅(주)

### 이오선 대표이사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프로젝트’ 참여

동아플레이팅(주)은 12월 13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 본부에서 진행되는 ‘제16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프로젝트’에 이오선 대표이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산타원정대에 참여한 이오선 대표이사는 후원금 500만원을 지원했다. 이오선 대표이사는 “매년 산타원정대에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는데 올해도 산타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 (주)파나시아

### 한국해양대에 대학발전기금 5,000만원 전달

(주)파나시아는 12월 14일 한국해양대학교에 대학 발전 기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기금은 2021년 12월 (주)파나시아와 해양대가 친환경에너지 관련 공동개발연구에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매년 5,000만원씩 10년간 지원하기로 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발전기금은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등 대학발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주)파나시아 관계자는 “지역의 청년들이 부산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부산의 많은 기업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주)태광

### 매천장학재단 75명에게 1억 1,138만원 전달

(주)태광은 12월 20일 부산 강서구 본사 회의실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제20회 매천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태광이 운영중인 매천장학재단은 이날 부산지역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16명 및 대학생 18명 총 75명에게 장학금 1억 1,138만원을 지급했다. 매천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하였으며 현재까지 1,662명의 지역 우수 장학생들에게 22억 6,944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재)매천장학재단 윤성덕 이사장은 “장학금 수상자들이 학문에 정진하여 창의와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국가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년도 부산상공회의소

# 실무교육 안내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우수한 강사진을 기반으로 인사/노무, 세무/회계, 영업/마케팅 등 실무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이용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구분	주제	교육명	교육기간 일 수	교육일정(월별)						강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세무·회계	연말정산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실무경력자용 3차)	1	4	5(목)					최재윤 세무사
2	세무·회계	연말정산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초급입문자용 2차)	1	7	10(화)					신해수 세무사
3	세무·회계	연말정산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실무경력자용 4차)	1	4	13(금)					강승수 세무사
4	세무·회계	법인결산	2022년도 신고대비 법인결산 세무조정, 신고	2	16	16-17 (월, 화)					정성훈 회계사
5	경영·기타	총무	법률지식이 없는 기업 담당자를 위한 효율적 거래대금 회수 스킬	1	8	31(화)					이중연 교수
6	인사·노무	인사노무기초	<b>신규</b> 사업주/관리자를 위한 노무리스크 관리 및 노무비 절감 방안	1	7		6(월)				이원희 노무사
7	인사·노무	인사노무기초	<b>신규</b>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핵심 인사노무 관리전략과 대응방안	1	7		7(화)				이원희 노무사
8	인사·노무	근태·급여	노동법 중심으로 풀어보는 임금관리 이론과 실습	1	4		17(금)				여찬도 노무사
단기	경영·기타	실무형 단기	구매자재관리 전문가 육성 단기과정: 구매관리 기본	2	단기		23,24 (목, 금)				목진환 대표
9	인사·노무	근태·급여	급여계산, 4대보험(연금/건강/산재/고용)	1	7			10(금)			박인아 노무사
10	인사·노무	인사노무기초	<b>신규</b> 인사노무 종합	1	7			17(금)			이춘성 노무사
11	세무·회계	세무회계기초	전사원이 알아야 할 접대비, 소비성경비 지출증빙 관리기술(상반기)	1	7			23(목)			오종원 회계사
12	경영·기타	무역	하루만에 끝내는 무역실무기초	1	7			27(월)			오시학 대표
13	인사·노무	인사노무기초	인사입문자를 위한 채용에서 퇴직까지 사례별 핵심실무 65가지 종합과정	2	14				3-4 (월, 화)		박현웅 노무사
14	세무·회계	세무회계기초	재무제표 작성 및 재무비율분석	1	7				13(목)		최재윤 세무사
15	세무·회계	세무회계기초	기초 세무실무의 이해	1	7				14(금)		이병현 세무사
16	세무·회계	세무회계기초	손익분기점 분석과 제품원가 계산 실무	1	7				18(화)		오종원 회계사
단기	경영·기타	실무형 단기	구매자재관리 전문가 육성 단기과정: 협력업체 관리	2	단기				20-21 (목, 금)		목진환 대표
17	인사·노무	인사노무기초	중소기업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인사·노무관리 핵심 포인트 365	1	7				12(금)		이승주 세무사
18	세무·회계	세무회계기초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기업회계와 가업승계 3종 세트 (양도, 상속, 증여세)	1	7				17(수)		오종원 회계사
19	경영·기타	총무	총무업무 마스터	1	8				22(월)		이중연 교수
20	세무·회계	세무회계기초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방안 실무 - 세목별 조사항목 준비, 행정해석 등	1	7				24(수)		오종원 회계사
21	경영·기타	영업	<b>신규</b> 영업관리	1	7				29(월)		윤재현 대표
단기	경영·기타	실무형 단기	구매자재관리 전문가 육성 단기과정: 자재관리 기본	2	단기				12-13 (월, 화)		목진환 대표
22	세무·회계	개정세법	2023년 개정세법에 의한 알기 쉬운 원천징수 실무	1	7				16(금)		이석정 세무사
23	세무·회계	세무회계기초	전사원이 알아야 할 감사보고서를 활용한 재무제표 분석 실무	1	7				26(월)		오종원 회계사
24	세무·회계	법인결산	2023년도 제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실무	1	7				29(목)		이석정 세무사

구분	주제	교육명	교육기간 일 수	교육일정(월별)						강사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	인사·노무	인사노무기초	<b>신규</b> 사업주/관리자를 위한 노무리스크 관리 및 노무비 절감 방안	1	7	6(목)					이원희 노무사
26	인사·노무	인사노무기초	<b>신규</b>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핵심 인사노무 관리전략과 대응방안	1	7	7(금)					이원희 노무사
27	세무·회계	세무회계기초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절세 설계 및 전략 핵심	1	7	14(금)					김창영 세무사
28	세무·회계	세무회계기초	전사원이 알아야 할 접대비, 소비성경비 지출증빙 관리기술(중반기)	1	7	19(수)					오종원 회계사
29	인사·노무	인사노무기초	정부의 노동정책, 근로관계 종료	1	4		24(목)				김재명 노무사
30	경영·기타	총무	<b>신규</b> 매출채권 회수관리 총무협업 기초실무	1	8		30(수)				이중연 교수
31	경영·기타	영업관리	<b>신규</b> 영업관리	1	7			4(월)			윤재현 대표
32	세무·회계	세무회계기초	전사원이 알아야 할 접대비, 소비성경비 지출증빙 관리기술(하반기)	1	7			8(금)			오종원 회계사
33	인사·노무	근태·급여	급여계산, 4대보험(연금/건강/산재/고용)	1	7			15(금)			박인아 노무사
34	경영·기타	무역	하루만에 끝내는 무역실무기초	1	7			21(목)			오시학 대표
35	세무·회계	개정세법	2024년도 적용되어야 할 개정세법안에 대한 해설	1	7			22(금)			정성훈 회계사
36	세무·회계	법인결산	2023년도 제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실무	1	7				6(금)		이석정 세무사
37	인사·노무	인사노무기초	인사입문자를 위한 채용에서 퇴직까지 사례별 핵심실무 65가지 종합과정	2	14				16-17 (월-화)		박현웅 노무사
38	세무·회계	근태·급여	인건비 종합실무	1	7				27(금)		손창용 세무사
39	세무·회계	세무회계기초	<b>신규</b> 중소기업 임직원이 알아야 할 핵심 세무	1	7					2(목)	오종원 회계사
40	인사·노무	인사노무기초	<b>신규</b> 인사노무 특별	1	7					3(금)	이춘성 노무사
41	세무·회계	법인결산	결산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시 누락하기 쉬운 체크포인트	1	7					10(금)	오종원 회계사
42	경영·기타	기타	<b>신규</b> 업무효율화, 체계적 업무시스템 만들기	1	7					24(금)	박희용 대표
43	세무·회계	연말정산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초급입문자용 1차)	1	7					7(목)	최재윤 세무사
44	세무·회계	연말정산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실무경력자용 1차)	1	7					11(월)	손창용 세무사
45	세무·회계	연말정산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실무경력자용 2차)	1	4					14(목)	최재윤 세무사





세계를  
변화시키는  
엑스포,  
이제 대한민국이  
주최합니다

# 2030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첫 번째 월드클래스 엑스포

부산상공회의 Show

# EVENT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부산상공회의 Show」를 구독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이 부산상공회의 Show 제작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추첨을 통해 의견을 보내주신 고마운 독자분께는 소정의 커피 쿠폰도 발송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전자엽서에 QR코드를 촬영하시면 구독자 의견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보내는 사람

---



---



---





QR코드를 촬영하시면  
구독자 의견 페이지를 자동연결 됩니다.

받는 사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9층

---

기획홍보실 부산상의Show 담당자

---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XM3 E-TECH**

**하이브리드**

